

April 16 몸의 부활을 믿는가?

- 요한복음 11:25-26; 고린도전서 15:44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늘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올바른 지식을 받아들일 때, 전전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롬 10:10). 부활은 ‘몸은 죽고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 당신의 뜻 자국을 만져 보고, 창 자국에 손을 넣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20:25).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몸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눅 24:39).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일까요?

성경에는 ‘몸’을 가리키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 ‘소마’는 자연적으로 창조된 인간의 신체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몸과 혼을 구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사륵스’는 ‘육신’이라는 말로 번역되며 영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롬 8:1-17; 앱 2:3). 하나님을 따라 사는 영적인 사람과 달리 본능적이고 육적인 성격으로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몸입니다. 부활 후 입게 될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고전 15:44). 어떤 몸일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소마와 사륵스, 두 몸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몸이 다시 살면, 죄와 유한함으로부터 자유하며 온전히 치유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몸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육신 가운데

살고 있으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신령한 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영의 것을 따라 사는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신령한 몸’ 또한 ‘천국’처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 몸을 만져 보도록 하셨습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나아갈 때, 주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 ❶ ‘몸의 부활’에 대한 질문이나 소망이 있습니까?
- ❷ ‘신령한 몸’은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